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92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4월 25일 (음력 3월 10일) 수요일

## ‘꽃샘추위’ 에 나주배 착과 불량..농가 ‘울상’



24일 나주시 세지면의 한 신고배 재배 과수단지. 배나무 가지마다 양중맞게 매달려 있어야 배 열매가 냉해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최대의 배 주산지인 나주지역에 개화시기 내습한 꽃샘추위에 의한 저온 현상으로 대규모 ‘착과 불량’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에 따르면 개화기 인공수분인 한 창이던 지난 7~8일께 나주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푹 떨어지는 꽃샘추위가 몰아쳤다. 특히 8일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며 눈과 서리, 돌풍을 동반한

### ‘국내 최대 배 주산지’ 개화시기 저온현상에 대규모 피해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내달 10일까지 원인파악 ‘전수 조사’

이상기온 현상까지 보였다.

이러한 기상 이변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만개한 배꽃에 서리가 내려 앉아 배꽃이 얼어붙는 냉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냉해에 얼어붙은 암술 씨방은 까맣게 썩는 현상이 발생해 수정이 어렵고 설상 열매가 맺히도 이후 발육 부진으로 모양이 일정치 않은 기형(果)로 성장해 상품 가치가 없는 등의 문제로 판정받게 된다.

나주배 재배농민 이모(52·세지면)씨는 “4년 전 봄에도 배꽃이 만개한 시기에 이상저온에 의한 착과불량 피해를 봤는데 올해도 냉해 피해가 발생해 수확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농가들의 냉해 피해 호소가 이어지자 나주시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배과수 단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오늘부터 시작된 조사는 오는 5월 10일까지 각 읍·면·동 별로 실시된다.

정확한 착과불량 피해를 집계는 배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완전히 맺히는 내달 중순께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배꽃이 만개한 인공수분 적기였던 지난 7~8일을 중심으로 기상관측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 8일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돼 배 인공수분 착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관련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수조사와 연구 분석 결과 냉해에 의한 착과불량 피해로 확인될 경우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들은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재해보험에서는 냉해 피해 기준을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로 규정하고 있어 보상절차는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해보험 보상 외에도 피해율에 따라 별도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피해를 50% 미만 농가에는 농약 값이 지원되며, 50%이상 농가에는 생계비와 융자금 이자 2년간 감면, 학자금 납부 6개월 연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배과수 단지가 밀집한 나주지역은 2017년 기준 전체 2000여 농가에서 배를 재배하고 있다. 지난해 배 생산량은 5만5000t을 기록했다.

신봉우 기자

### Photo 漫評

퇴출?

조원민 대한항공 전무가 ‘물벼락 갑질’ 열흘 만에 한진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게 됐다. 지난달 말 경영 일선에 복귀한 조 전무의 언니 조원아 갈호텔네트워크 사장도 사퇴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2일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장녀인 조 시장과 차녀 조 전무를 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사퇴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4년 ‘평공화향’ 사건으로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던 조 시장이 집행유예 기간에 복귀한 것처럼 이번에도 약화한 여론을 달래기 위한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조 회장은 “조원민 전무는 대한항공 전무직을 포함해 한진그룹 내의 모든 직책에서 즉시 사퇴하도록 하고, 조원아 갈호텔네트워크 사장도 현재의 모든 직책에서 즉시 사퇴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무는 그룹 내 7개 계열사에서 대표이사 등을 맡고 있으며, 조 시장은 지난해 2월 갈호텔 사장으로 선임돼 활동을 재개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보를 상상에 본다.

신봉우 · 자료사진=뉴시스



## 윤장현 광주시장 “세계수영대회 북한 선수단 참가 추진”



윤장현 광주시장은 24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역사적인 시점에,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 선수단 참가 등 다양한 영역의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24일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역사적인 시점에,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 선수단 참가 등 다양한 영역의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개최 역사적 순간 마주”

“광주형 남북 교류협력에 정성 당부”

“우리는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로 중대한 변화를 맞을 역사적 순간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시장은 “광주시도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남북평화의 물

줄기에 힘을 보탬 수 있도록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 선수단 참가 등 문화·스포츠·민간지원의 다양한 영역에서 광주형 남북 교류협력에 정성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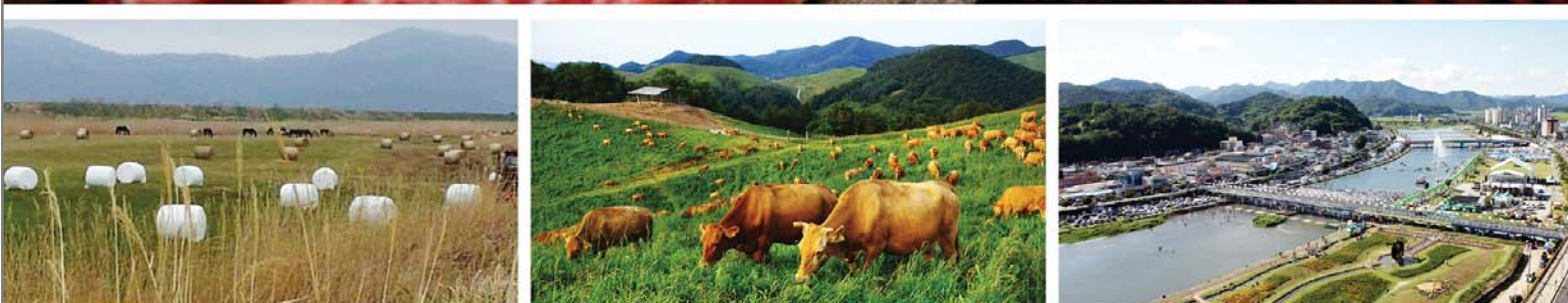
그는 “문재인 정부의 과당성 있고 전략적인 판단 속에 새로운 변화를 맞을 계기를 잡았다”며 “상생·화해·협력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시점에 마음을 모아 함께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최근 시장사 외벽에 한반도기를 게양하는 등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또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도 북측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오는 9월 수영선수권대회 ‘D-300’을 기념해 남북 문화공연도 추진중이다.

조직위는 또 남북 문화공연에 이어 북한 선수단 참가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서은홍 기자



정남진장흥  
한우  
Jeongnamjin Jangheung Korean Beef

값싸고 질 좋은 장흥한우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 www.jangheung.go.kr

장흥군 · 장흥한우유통합산업회사사업단